

1990년 이후 복막 투석을 시작한 환자의 생존 및 복막염에 관한 단일 기관 자료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서울의대 의학연구원 신장연구소

윤현배 · 박혜인조 · 이하정 · 한승석 · 김세중 · 오국환 · 주권욱 · 김연수 · 안규리 · 한진석 · 김성권

A Report of Survival Rate and Peritonitis of Peritoneal Dialysis Patients in a Single Center Since 1990

Hyun-Bae Yoon, Hayne Cho Park, Hajeong Lee, Seung-Suk Han, Sejoong Kim, Kook-Hwan Oh
Kwon-Wook Joo, Yon Su Kim, Curie Ahn, Jin Suk Han and Suhnggwon Kim

Seoul National University, College of Medicine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
Seoul National University Kidney Research Institute

목적 : 복막 투석은 말기 신부전의 신 대체 요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, 국내 생존 관련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. 이에 저자들은 1990년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복막 투석 환자의 생존 및 복막염 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, 향후 진료와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90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복막 투석을 시작한 15세 이상의 환자 가운데 3개월 이상 복막 투석을 시행한 57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이들의 성별, 나이, 신부전의 원인, 당뇨병, **Davies comorbidity score**, 사망이나 복막 투석 중단 원인, 그리고 복막염의 발생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였다. 환자의 차트, 전자 의무 기록과 마이크로필름, 복막 투석실 간호 기록지, 사망 진단서 등 가용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였다.

결과 : 남성은 59%였고, 복막 투석을 시작한 나이는 48.4 ± 14.4 (평균 \pm 표준편차)세였다. 말기 신부전의 원인은 당뇨가 34%로 가장 많았고, 심혈관계 질환은 21%에서 동반되었다. **Davies comorbidity score**가 0인 환자가 51%, 1이 29%, 2가 12%, 3 이상이 8%였다. 복막 투석 관찰 기간은 평균 42.9 ± 35.2 개월이었고, 관찰 기간 동안에 사망한 환자는 총 94명 (16%)이었다. 사망 원인은 감염과 심혈관계 질환이 각각 20명 (21%)과 19명 (20%)이었고,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9명 (52%)이었다. 5년 생존율은 77%, 10년 생존율은 54%였고, 평균 생존 기간은 119.1개월이었다. 남성의 5년 생존율은 72%로 여성의 85%에 비하여 낮았고 ($p=0.078$), 50세 이상은 68%로 50세 미만의 93%에 비하여 낮았다 ($p<0.01$). 당뇨 환자의 5년 생존율 (61%)은 비당뇨 환자 (91%)에 비하여 낮았고 ($p<0.01$),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의 5년 생존율 (59%)도 대조군 (86%)에 비하여 낮았다 ($p<0.01$). 또한 **Davies comorbidity score** 0인 환자의 5년 생존율은 92%, **score** 1에서 81%, **score** 2에서 57%, **score** 3 이상에서 31%로서, 동반 질환의 수가 증가할수록 생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($p<0.01$). 관찰 기간 동안에 복막 투석을 중단한 환자는 총 314명으로, 중단 원인은 이식 (99명, 32%), 사망 (94명, 30%), 복막염 (71명, 23%) 등이었다. 대상 환자의 기술적 생존율은 2년이 77%, 5년이 49%, 10년이 17%였고, 평균 복막 투석 기간은 58.8개월이었다. 전체 기간 동안의 복막염 발생률은 0.237 회/patient-year 이었고, 원인 균의 분포는 그람 양성 43%, 그람 음성 26%, 혼합 균주 4%, 진균 2%, 배양 음성 24%이었다.

결론 :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복막 투석의 환자 생존율과 복막염 발생률 등은 서구의 보고에 비해 우수하였다. 남성, 고령, 당뇨 및 심혈관계 질환 및 동반 질환 등이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Key Words : 복막 투석, 생존율, 복막염

Peritoneal dialysis, Survival rate, Peritonitis